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0 0 1

2013년 계사년을 돌아보며...

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 등 새로운 변화

다사다난했던 2013년

2013 계사년(癸巳年)이 저물어 간다. 금년 육계업계는 희비가 교차한 다사다난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육계계열화사업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업계에 큰 희망을 준데 반해 한·중 FTA 협상개시, 대형 할인마트의 수입닭고기 판매,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종계 도태사업 등 업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들도 발생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전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육비 인하' 등 일부 농가들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각 계열사들이 농가협의회를 구성하고 계열사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의도는 향후 육계산업 발전에 있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년에 육계업계에 영향을 가져온 것이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법령(이하 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사)대한양계협회의 노력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3일 축산계열화사업법을 발효하였고 지난 9월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일단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시행 원년이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점차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교적 무난했던 육계경기

2013년도는 지난해에 비해 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년 육계 가격은 대담기준 1,844원(11월까지)으로 2012년 1,670원에 비해 높게 유지되면서 무난한 한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수입은 지난해 수입량인 12만 3천 톤 보다 적은 12만 톤 정도가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 감소는 다양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나 5월과 7월 대형마트들의 수입닭 판매열기와 닭고기 끼워팔기식에 대해 축산단체들의 강력한 항의 등이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자조금 활발한 활동

금년도의 자조금 사업은 종계도태사업과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다소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기도 했으나 다양한 분야(농가교육, 조사연구, 수급안정, 소비홍보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금년 닭고기 자조금 사업에서 큰 변화라고 하면 거출금 인상을 들 수 있다.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닭고기 자조금 거출금액을 육계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해 자조금을 거출하기 시작했다. 적용시점과 일부 계열사들의 반발로 다소 진통이 있었으나 농협 목우촌 등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계열사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자 자조금을 통해 초반에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이 종계 도태사업이다. 종계 도태사업은 닭고기 자조금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종계(35~45주령) 100만수와 원종계 7만 4,600수를 감축기로 합의하면서 실시됐다. 도태사업 결과 목표량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종계 44만 6,606수를 감축했고 원종계는 4만 7,500수를 자율 감축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비록 사업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종계 도태사업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 육계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조금 사업을 통한 농가교육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양계인과 양계업계를 하나로 집결시키는 역할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5월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2013년 전국 양계인 대회'를 개최했으며, (사)한국계육협회는 지난 11월 '제1회 전국 계육인 상생전진대회'를,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제1회 한닭인 대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닭고기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었다. 지역적으로 시식행사를 통해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

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40회 실시한 바 있다. 이 밖에 구구데이 행사는 물론 대구에서 개최된 치맥페스티벌과 춘천에서 개최된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등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육계산업 활성화에 큰 보탬을 주었다.

제3기 닭고기 자조금 대의원 출범

금년에는 제3기 자조금 대의원이 구성되면서 내년도의 자조금사업 추진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총 71명이 후보로 등록하여 전 선거구 무투표 당선이었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는 2기에 비해 대의원 숫자가 6명이나 더 선출되는 등 자조금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육계산업은 한·중 FTA협상, TPP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육계 생산잠재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원종계 쿼터제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진행이 되고 종계수수 감축노력이 이어진다면 희망적이지 않을까 여겨진다. 특히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정착과 닭고기 자조금 사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육계산업이 안정화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2014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 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계열화사업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인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김 정 주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장

김정주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장(이하 분쟁조정위원장)은 대학교에 입학할 당시 자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측에서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할테니 졸업한 후에는 농촌으로 들어가서 주변의 농민들을 계몽하며 스스로 부자가 되고 주변 농민들도 부자로 만들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학교 측에서 제시한 조건은 4년 전액장학금이었고 김정주 분쟁조정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당시(1970년대 초)만 해도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농사를 한다는 것은 흔치 않았고 우선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김정주 분쟁조정위원장은 약속을 깨고 취직을 했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농촌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었다.

“농민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김정주 분쟁조정위원장은 대학교 교수가 된 후 본격적으로 농촌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소나 돼지 같은 대형축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중소형축종인 양계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양계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한 김정주 분쟁조정위원장은 계열화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 소장,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김정주 분쟁조정위원장은 올해 4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장을 맡아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정주 분쟁조정위원장이 생각하는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길을 들어봤다.



인터뷰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호협력을 이끌어 내는 좋은 선례 남기길 바란다

자조금 사업은 상생의 틀만 형성된다면 저절로 순조롭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돼
육계계열화사업은 체계화되고 생산성이 높으나 이익 분배에 있어서는 개선점 많아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으로서 자조금사업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조금!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출범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 축발기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는 축발기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계열화사업에 외부지원이 한 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자조금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닭고기자조금도 초창기보다는 좋아졌으나 아직도 한우나 낙농, 한돈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다른 축종농가들도 자조금을 내는 것이 아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자조금사업을 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체가 톨톨 뭉친 결과입니다. 그런데 육계 쪽에서는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자조금을 제자리 걸음시키고 있습니다.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상생의 틀만 형성된다면 자조금사업은 저절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지요.

저는 본격적으로 양계 분야를 연구하면서 분배문제 등 육계계열화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육계산업 중재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올해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지난 2월 23일 발효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명시된 기관입니다. 이 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육계계열화 사업과정에서 억울한 농가나 계열화사업자는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옛날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쟁조정위원장으로서는 성화식품(주) 사태를 잘 마무리 지어서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분쟁

을 조정하고 상호 이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 육계산업의 계열화사업의 성과 및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육계계열화사업은 경영조직을 체계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 계열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료요구율이 2.0에서 1.5로 향상되었고 육성률도 95%에서 98%로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향상된 결과가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확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열화사업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왔습니다. 이제 육계 산업에서는 농가의 억울한 사정이나 계열업체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양측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적정한 선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양측이 강성으로 치달으면 결국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도 초기에는 강성노조 때문에 문을 닫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망하면 회사와 노동자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큰 불행을 막자는 의미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구가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를 유도해 가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농가와 계열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상생한다는 게 말은 쉬우나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서로에 대한 양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보를 이끌어 내는 일을 중재위원회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육농가들은 계열화사업자가 약간의 배려만 해주어도 감동을 받고 계열화사업자와 함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한 평생 닭을 키우는데 전념한 농민들에게 육계사육은 천직과 같은 것입니다. 빛까지 내면서 시설을 갖추며 닭을 사육해 왔는데 농가들이 닭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열화사업자 측에서 ‘가진 자의 자비’를 베풀어 농가들을 배려해 준다면 농가들도 이에 부응해 자신들의 입장을 양보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육계 산업이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양보와 배려를 통해 상호 이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모범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HOT
ISSUE

0 0 2

2013년 닭고기자조금 10대뉴스

올해 첫 축산계열화사업법 시행 및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

① 축산계열화사업 전격 시행

지난 2월 23일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사) 간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법이 발효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현재 95%가량의 육계농가들이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육농가와 계열사 간에 원자재의 품질문제 및 계약의 불공정성, 사양관리

및 장기고정 사육농가의 감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을 발효했으며 지난 9월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또한 (사)한국계육협회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계열사와 농가 간 상생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있다.

② 육용(원)종계 도태사업 실시

닭고기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장기불황을 타개하고자 양계업계는 육용(원)종계 도태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육용(원)종계 도태사업은 닭고기자조금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가 종계(35~45주령) 100만수와 원종계 7만 4,600수를 감축기로 합의하면

서 진행됐다. 도태사업 결과, 종계는 44만 6,606수를 감축했고 원종계는 4만 7,500수를 자율 감축했다. 비록 사업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종계 도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육계산지가격은 11월까지 대담이 평균 1,844원/kg으로 지난해 연평균 1,670원/kg보다 높게 형성되며 소기의 성과를 나타냈다.

③ 전국 양계인 및 육계산업 관련인 축제의 장 마련

올해는 각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행사들이 진행된 한 해였다. (사)대한양계협회는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3~4일 천년고도 경주에서 농가의 사육주권을 회복하고 농가와 계열사의 상생을 위한 '2013년 전국 양계인 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계육협회는 지난 11월 5일 안성팜랜드에서 계약농가

와 계열사 간 상생협력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지속적 동반성장을 위한 '제1회 전국 계육인 상생전진대회'를 열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10월 10~1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협회 창립 10주년과 한협 60주년을 기념하고 종계강국 실현을 위한 '제1회 한담인 대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④ 수입산 닭고기 판매중단 촉구 집회 전개

양계관련 단체와 농민들은 대형할인판매점의 수입산 닭고기 판매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월에는 대표적인 대형할인마트인 이마트 지점에서 각 단체 관계자 및 농민들이 1인 시위를 전개했으며, 이마트 측은 앞으로 수입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고기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7월에는 최대 닭고기 수요기인 북 시기에 홈플러스에서 국내산 닭고기를 미끼상품으로 할인하며 수입산 닭고기 판매를 진행하자 각 단체와 농민들이 반대집회에 나섰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현재 계약된 수입산 닭고기 물량을 소진하고 난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⑤ 구구데이 페스티벌 - 닭고기자조금, 계란자조금과 공동으로 개최

지난 9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구구데이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부위별 닭고기 요리 및 건강에 좋은 전통발효식품을 활용한 '7색7미 효소 맛닭'도 전시해 닭고기 요리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

시했다. 또한 구구데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클라라와 닭고기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닭고기 요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간을 가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우수브랜드 통큰 할인행사, 구구데이 홍보Wall, 구구데이송 발표 등 닭고기의 소비촉진과 올바른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⑥ 지역별 닭고기 홍보 행사 개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닭고기 홍보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돼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춘천닭갈비로 유명한 춘천에서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춘천 캠페이지에서 '2013년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하는 닭갈비업소들의 닭갈비 판

매부스가 마련되었으며 1,000인분 닭갈비 무료시식행사가 진행돼 닭고기의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보조경기장에서는 '2013년 치킨맥주 국제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치맥축제는 치킨의 종주도시 대구에서 한국식 치킨을 세계화시키기 위해 기획된 축제이다.

⑦ 토종가축 법안 통과 - 내년부터 '토종가축 인정제' 시행

올해 2월 23일부터 토종가축법이 시행되면서 토종닭 종자가 세계 닭고기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토종가축법이란 올해 개정된 축산법 내에서 토종가축에 대한 정의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에 관해 규정한 제도이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이에 발 맞춰 하위법의 제정 및 단계별 한담 인증제 확대,

종자 등록, 전문도계장 건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9일 축산법에 근거하여 '토종가축 인정제'를 제정하고 고시하였다. 이 제도는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고자 제정하였으며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⑧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 선거 및 자조금거출금 인상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대의원선거를 통해 55개 선출구에서 총 71명의 대의원(임기 4년)을 선출했다. 이번 대의원 선거는 제2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임기가 오는 12월 21일(토)에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또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부

터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을 인상해 자조금을 거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해 수당 육계 3원, 삼계 1.5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이던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은 올해 3월부터 수당 육계 5원(계열사 3원, 농가 2원), 삼계 3원(계열사 2원, 농가 1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으로 변경되었다.

⑨ 한·중 FTA 반대집회 - 농업분야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 요구

지난해 5월 초 정부는 한·중 FTA 협상개시를 공식선언했다. 협상 타결 시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값도 싸고 비위생적인 중국산 닭고기로 인해 국내 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등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와 농민들은 지난 7월 2일 부산 벡스코 옆

오디토리엄에서 한·중 FTA 1단계 협상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인천 쉐라톤호텔 인근에서 8차 협상(2단계) 반대집회를 진행하며 농업분야를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12월 들어 한·호주 FTA가 타결됨에 따라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업계의 파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⑩ 축산업허가제 본격 시행 - 농가 의무사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업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에 대해 일선 시·군·구에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대상농가는 2014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육시설·소독시설·방역시설 등 시설 및 장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치기준, 대상별 교육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HOT
ISSUE

0 0 3

일본 방사능 유출 이후 닭고기 소비 큰 폭으로 늘었다

수산물 대체효과로 닭고기 수요 7.4% 증가...철저한 방역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국내 닭고기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의 전면 금수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각 언론매체에서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해 보도하면서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수산물의 소비도 급감했다. 이처럼 수산물의 소비감소 물량의 일부분은 육류 소비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도시 661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누출 보도 이후에 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는 응답자가 521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수산물의 소비량을 줄였다는 응답자 중에서 육류 소비량을 늘렸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40.1%인 204명으로 조사되었다. 수산물 소비를 감소시킨 응답자 가운데 대체 육류 소비 선호도는 국산 돼지고기 40.1%, 한우고기 28.7%, 닭고기 17.9%, 오리고기 6.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염수 누출 보도 이후 육류별 평균 수요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국산 돼지고기 10.3%, 닭고기 7.4%, 한우고기 6.0%, 오리고기 4.5%, 수입 쇠고기 2.2%, 수입 돼지고기 0.8%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기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닭고기는 수요 증가율에 있어서 국산 돼지고기 다음으로 높아 닭고기의 수산물

대체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로 인한 수산물의 육류 대체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식품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소비자의 식품 소비동향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육계농가는 닭고기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육계 질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AI 등의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수산물 대체 육류의 평균 수요 증가율 |

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한우	오리고기	수입 쇠고기	수입 돼지고기
10.3%	7.4%	6.0%	4.5%	2.2%	0.8%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제77호〉

농축산부, 농가들에게 겨울철 재해대책 마련 당부

육계농가, 가축재해보험 통해 올해 설해 피해로 평균 2,269만원 보상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겨울철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 겨울은 대륙성 고기압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부는 예년보다 10일 일찍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운

용하는 한편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축산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실장 주관으로 초동대응팀 등 5개팀 16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대책상황실은 전국 농가들에게 폭설과 한파 등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요령을 마련하고 전파할 계획이며, 분야별로 재해대비 관리요령을 보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축산부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들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

하고,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에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협 손해보험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설해피해로 보상받은 육계농가의 사례는 2012년 1건 223만원, 올해 13건 2억 9,500만원(2,269만원/건)이다. 2012년에 비해 올해의 폭설에 대한 보상건수나 보험금이 급격히 늘어난 데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요인도 있겠지만, 그 만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손실을 보상받은 농가가 많아졌

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계사의 경우 축사특약을 통해 화재나 설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협 손해보험 측은 계약자가 처음 선택한 가입금액에 따라 최소 몇 십만원에서 최대 몇 십억원(화재에 의한 전소 등)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무허가 축사의 경우에도 가설건 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 축사특약에 가입이 가능하나, 가축재해보험료 50%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농가에서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육두수와 대형농가수 늘면서 공급과잉 현상 증가

닭고기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 및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농촌진흥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육계산업은 가축사육두수가 증가한 동시에 5만수 이상 대형농가수도 많아져 닭고기의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한 축산통계 30'을 제공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닭 사육두수가 2006년에는 3,600호가 1억 1,918만수, 2010년 3,600수가 1억 4,920만수, 2011년 3,400호가 1억 4,951만수, 2012년 3,100호가 1억 4,683만수, 2013년 6월

현재 3,500호가 1억 6,774만수를 사육해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해 왔다. 호수당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3만 3,106수, 2010년 4만 1,444수, 2011년 4만 3,974수, 2012년 4만 7,366수, 2013년 4만 7,927수로 한 농가당 사육두수도 계속 상승해 왔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대형 농가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촌진흥청의 사육규모별 호수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2만수 미만 농가가 1,400호이고 5만수 이상 농가가 700호인 반면 2013년 6월 현재 2만수 미만 농가가 800호이고 5만수 이상 농가가 1,200호로 나타나 2만수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줄어들고 5

만수 이상의 대형농가는 증가했다.

이 같은 자료에서 보듯이 육계농가는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각 농가별로 농장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닭고기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농장규모의 대형화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

현대화사업이 하나의 원인으로도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닭 사육두수 및 호수 |

(단위 : 천두(수), 천호)

구분	수수	호수
2006년	119,181	3.6
2010년	149,200	3.6
2011년	149,511	3.4
2012년	146,836	3.1
2013년(6월)	167,743	3.5

〈자료 : 통계청, 각년도 12월 기준〉

| 사육규모별 호수 |

(단위 : 천호)

구분	2만수 미만	2~3만수 미만	3~5만수 미만	5만수 이상
2006년	1.4	0.6	0.9	0.7
2010년	1.0	0.6	1.0	1.0
2011년	0.9	0.6	0.9	1.0
2012년	0.8	0.5	0.8	1.0
2013년(6월)	0.8	0.5	0.9	1.2

〈자료 : 통계청, 각년도 12월 기준〉

기고문 '전염성기관지염(IB)+뉴캐슬병(ND) 혼합백신 전면 사용'

백신 사용에 따른 농가 주의사항

한 장 혁
고려비엔피 상무

2014년 이후 부화장에서 ND 또는 ND+IB 혼합백신 중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이 입안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과거 ND 백신만 정부지원이 이루어졌던 반면, 혼합백신으로 선택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농가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 높은 백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행히 농가부담도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아 양계농가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IB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변이가 잘 이루어진다. 때문에 많은 변이주들이 존

재하고 이런 변이주들 간에 교차방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동안 방어력이 좋아 잘 쓰고 있던 백신이 1990년대 신장형 IB발생시 기존의 IB백신(매사츄세츠 타입, 예:H120, Ma 5)을 충분히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형 IB발병을 경험해본 농장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방어하기 곤란한 IB는 안타깝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이며 더욱 병원성이 강한 변이형 IB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IB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질병이어서 국가적으로 1일령 IB백신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현재 판매중인 IB백신(B+) IB+ND백신(BN++)은 최근에 만들어진 백신으로 호흡기 및 신장형에 대해 기존에 백신을 월등히 뛰어 넘는 백신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백신 프로그램은 1

일령 분무이다.

정책변경에 앞서 농가에서 혼합백신을 사용하면서 생길수 있는 분무 후 접종 반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행히 혼합백신에 대한 후유증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후유증이 없

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험을 하였으며 최소 100만수 이상에서 후유증의 검증은 완료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생길 수는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 1 IB백신은 분무시 특별히 라셀음이 들린다.
- 이것은 이상 호흡기염(질병)이 아니다.
- 2 분무 후에 농장 도착 시 까지 온도 충격, 특히 저온에 노출할 경우 기관지 섬모의 운동 소실로 인해 호흡기를 유발한다. (이는 백신의 부작용이 아님)
- 3 농장에서 깔짚 비용의 상승으로 깔짚 재사용시 계사내 암모니아 농도의 상승으로 인해 눈이 맵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어릴수록 강도가 더 하며, 백신의 부작용이 아니다.
또한 일부 부화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분무기 사용(분무 입자, 압력, 시간 등)으로 적절한 면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 4 혼합백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높은 백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병아리 관리 등 종전의 ND단독 백신접종과 마찬가지로 사양관리를 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육계질병가이드 /
닭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Q. 겨울철에 다발하는 호흡기 질병 중에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의 특징 및 증상 대해 알려주세요.

A 닭마이코플라즈마병(Avian mycoplasmosis)은 만성적인 호흡기 증상을 주된 증세로 하는 만성호흡기질환(CRD)과 관절염을 주된 증세로 하는 마이코플라즈마성 관절활막염(infectious synovitis)을 총칭한 질병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나 다른 세균과 복합감염 될 경우에는 흔히 복합만성호흡기병(CCRD)이라 불려집니다.

조류에 감염되는 마이코플라즈마균은 약 20여 종이 있으며 그 중 닭에서 병원성이 가장 높은 균은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MG)과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MS)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MG)은 만성호흡기병의 원인체이며,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MS)는 호흡기 증상과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활막염의 원인균입니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계로부터 MS를, 반대로 관절막염 증 부위에서 MG가 분리되고 있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MG는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파는 감염계와의 직접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

으며 MG균이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호흡기계를 통한 감염(수평 전파) 또는 감염된 모계로부터 난계대 감염(수직 전파)에 의해 일어납니다. MG균은 외부에서 1~4일, 길게는 7일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감염 후 12~21일의 잠복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후 빠르게 전파돼 감염 후 4주 이후면 계군의 90%이상 감염됩니다. 감염된 닭에서는 만성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음과 콧물, 기침 등의 임상 증상이 관찰되며 사료효율의 감소와 체중저하, 산란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산란율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MG균 감염 개체는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MG균 감염에 의해 기관지 세포가 약화되면 뉴캐슬병, 전염성기관지염, 대장균증 등 호흡기계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짐으로써 2차 감염에 의한 폐사 및 경제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가끔진료 연구소)

차별화된 맛과 영양을 갖춘
'포레오래' 치킨제품들

농협목우촌(대표이사 성병덕) 포레오래는 정직과 신뢰의 농협중앙회 브랜드 이미지와 목우촌의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장 정직한 가격에 최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100% 국내산 닭고기와 100% 1등급 닭만을 선별하고 있으며 가장 맛있는 치킨은 좋은 원재료에서 시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차별화된 맛을 지켜나가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국산 쌀가루로 튀김옷을 입혀 바삭바삭한 맛과 품질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킨 포레오래는 깨끗하고 신선한 100% 식물성 기름만을 사용하여 건강과 맛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포레오래는 치킨제품에서 차별화

를 추구하며 다양한 메뉴를 구성하고 있다.

'순살치킨'은 빵가루를 입힌 튀김옷의 바삭함 속에서 속살의 고소함이 탁월하게 느껴지는 뼈 없는 순살제품으로 어린이 발육에 좋은 우유 칼슘과 생코코넛까지 첨가했다. '라이스볼'은 쫄득한 닭가슴살에 바삭한 라이스볼을 가미해 라이신과 유산균, 칼슘, 강황 등 풍부한 건강 영양소가 듬뿍 담겨 맛과 영양을 함께 이뤄낸 웰빙치킨이다. '파닭'은 질 좋은 목우촌 닭고기를 담백하게 튀긴 뒤 매콤한 파채를 와인소스에 버무려 내어 아이들의 두뇌발달에 좋은 영양간식이다. '꿀간장치킨'은 부분육을 바삭하게 튀겨 꿀간장소스를 발라 달콤하고 감칠맛이 일품인 치킨이다.

농협목우촌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에 힘쓰고,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 (2013년 11월)

(단위: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 소
남상길	법곳농장	90,000 (330,000)	경기 고양시 일산구
성화-안중규		41,010 (130,710)	
이동용	갈현농장	200,000 (1,000,000)	충남 서산시 성연면
김용환		330,000 (330,000)	
이옥례	해피농장	221,559 (1,233,561)	전남 곡성군 겸면
박영임		149,330 (149,330)	
이신희		152,480 (152,480)	
이정환	응봉농장	150,000 (438,720)	충남 예산군 응봉면
배광수	수월농장	95,850 (379,290)	경남 거제시
이영하	시온농장	150,000 (630,000)	충남 논산시 광석면
이영화	상우농장	90,000 (180,000)	경기 포천시 창수면

※ 11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1,670,229원이며,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사)대한양계협회



2013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성공적 마무리 - 전국 15회, 약 650여명 참가



협회는 2013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을 통해 축산계열화법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대응책에 대해 설명했다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

지난 10월부터 전국단위로 진행되었던 2013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이 지난 11월 28일 충북 충주의 교육을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은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농가들의 법령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단위로 개최되었다.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은 전국 15회 개최되었으며 약 650여명이 교육에 참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농가들은 평소 계열사와의 마찰에서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호응도도 높았으며, 축산계열화법 활용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이로서 금년도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이 순조롭게 마무리 지어졌으며, 본회는 앞으로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면서 생기는 많은 시행착오와 보안사항에 대해 농가들의 의견을 모아 해당법령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해갈 계획이다.

마땅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해 약자의 입장에 서있었으나, 금번 교육을 통해 사례별로 농가의 대응책과 정부에서 보장하는 농가보호 법령을 습득함으로써 앞으로 계열화 사업의

토종닭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계육협회와 토종닭협회는 닭고기소비를 늘리고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 기울이기로

지난 12월 10일,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와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닭고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협회는 2014년도 2월 소치동계올림픽, 6월 브라질월드컵, 9월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닭고기 소비를 늘리고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육계·토종닭 사

정보를 계약농가에 제시토록 하고,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율이 3%이상일 경우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으로는 출하가축의 도계 과정을 위해 최소 3시간 이상 절식할 것과, 출하가축의 상해와 비정상적인 상태로 공급을 해서는 안된다. ▲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는 적절한 단열, 급이 급수시설, 환기기설을 갖추어야 하고 소독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토의사항으로는 12월 1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예정인 하림 계란유통사업 진출 저지 대규모 집회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국내 최대 계열화 기업인 하림의 계란유통산업 진출은 또 다른 계열화사업의 시도로 해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규탄집회를 개최하는데 육계분과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반대의사를 밝히기로 하였다.

(사)한국계육협회



육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닭고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해 나갈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양 협회는 닭고기 산업 부문의 정책

개발 건의, 제도개선 및 입법 추진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 토종닭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육계 계열화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비롯한 육계·토종닭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닭고기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이사회회의 개최



이사회는 토종가축 법안, 한담인 대회 결산, 한·중 FTA 반대집회 등에 대해 보고했다

본 협회는 지난 11월 19일 이사회의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의는 먼저 토종가축 법안, 한담인 대회결산, 한·중 FTA, 주요 행사 등을 보고 하였고 이후 토종닭 산업 안정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11월부터 5월까지 AI 위험시기이므로 방사금지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토종닭 홍보관 마련



한국첨단농업기술박람회, 한국첨단농업기술박람회에 참가해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소비·홍보시식 행사, 제1회 한국첨단농업기술박람회 참가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본 협회는 계속적으로 토종닭홍보 시식행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2월 3일 서울 광진구, 12월 5~8일 진행된 2013 한국첨단농업기술박람회 행사에 참가해 참관객에게 홍보 시식행사를 하여 우수한 우리 토종닭 '한담'을 홍보했다. 광진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토종닭의 다양한 훈제제품을 시식 홍보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개최된 융복합(ICT, BT, NT) 첨단기술을 접목한

와 농림축산식품부 후원으로 '농업, 첨단산업으로의 진화'라는 주제로 마련된 행사로 총 500부스가 참가하였다. 본 협회는 이 행사에 참가하여 전국 농업인과 관련 기업인, 공무원, 연구원, 일반소비자, 요리전문가, 언론 및 VIP 등 초청자, 참가자를 대상으로 토종닭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벌였다. 협회는 토종닭 '한담'을 알리고 토종닭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토종닭 '한담'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역본부, 고병원성 AI차단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및 야생조류 접근 차단, 철저한 소독 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역학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가금사육 종사자에 대한 방역조치 권고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원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의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유입가능 요인에 대해 심층 토론했다.

위원들은 주변국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과 다양한 유입가능요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금년 겨울철에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일차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네팔 등 주변국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저병원성 AI병원체가 계속 검출되고 있어 고병원성 AI병원체로 변이 및 검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과거 4차례 발생한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주기가 2~3년으로 금년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

금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가금농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가금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및 철새가 운집할 수 있는 장소(먹이를 섭취하는 논, 밭 등)에 대한 출입을 절대 금지하며, 계사에 야생조류 및 야생동물(야생 고양이 등)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가금 사육농가 및 상설 재래시장, 가금운반차량 등에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박용호 본부장은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는 축주의 철저한 자율 방역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방역조치 권고사항을 방역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사료섭취 저하, 산란율 감소, 벼슬 및 다리 청색증 등 의심축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신고(☎1588-4060, 1588-9060)하기 바란다.

싱가포르, 타이산 닭 수입 금지를 철폐

AI청정국인 국내 닭고기의 수출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듯

싱가포르가 9년 동안의 타이산 냉동 닭 수입 금지를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산 닭 수입 연기 철폐 결정은 싱가포르-타이 경제적 관계 강화(Singapore-Thailand Enganced Economic Relationship)의 3번째 미팅에서 결정되었다. 타이 상무 장관 Niwatthumrong Boonsongpaisan은 싱가포르가 닭이나 다른 제품들에 관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이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로 태국에서 냉동산 혹은 공정과정을 거친 닭 수입을 중지하였다. 타이 상무 장관 Niwatthumrong은 현재 싱가포르가 태국의 높은 위생 기준을 인식하

면서 타이산 냉동 닭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싱가포르에서 보다 많은 타이산 냉동닭을 수입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무역량 증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AI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추후 국내 닭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철저한 AI차단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대한 닭고기 수출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3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 결과

선거구	지역	시군명	시군별 대의원수 대의원수	선출구	후보자 등록현황
1	강원	춘천시	1	춘천철원 축협	여성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2	강원	원주시	1	홍천축협	강신각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3	경기	고양시	2	김포축협	남상길 김명기
		김포시			
		파주시			
4	경기	연천군	2	파주연천 축협	김정국 임달주
5	경기	가평군	1	가평축협	-
6	경기	양주시	1	포천축협	장용권
		포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서울시			
7	경기	양평군	1	양평축협	구본선
8	경기	여주군	1	여주축협	유영도
9	경기	성남시	1	이천축협	김동재
		광주시			
		이천시			
10	경기	용인시	2	용인축협	김진선 최기태
		수원시			
11	경기	안성시	2	안성축협	한경택 최원술
12	경기	평택시	1	평택축협	-
13	경기	화성시	2	수원축협	최길영 최영규
14	경남	산청군	1	합천축협	박수만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5	경남	창원시	1	창녕축협	-
		합안군			
		창녕군			
16	경남	김해시	1	밀양축협	정대현
		밀양시			
		양산시			
		북구			
	부산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울주군			
17	경남	진주시	1	진주축협	이상정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선거구	지역	시군명	시군별 대의원수 대의원수	선출구	후보자 등록현황
18	경북	안동시	1	안동봉화 축협	홍순중
		영주시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19	경북	상주시	2	상주축협	송영태 이박소
		김천시			
		문경시			
		예천군			
20	경북	구미시	2	의성축협	이규복 장재성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21	경북	포항시	1	영천축협	구성보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22	전남	영암군	1	영암축협	-
23	전남	강진군	1	강진완도 축협	-
		장흥군			
24	전남	목포시	2	목포무안 신안축협	조건택 이민선
		신안군			
		무안군			
25	전남	함평군	2	함평축협	노기용 정성호
26	전남	영광군	1	영광축협	김병오
27	전남	진도군	1	해남진도 축협	전병현
		해남군			
28	전남	나주시	2	나주축협	김정운 봉진호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29	전남	광산구	2	곡성축협	이옥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선거구	지역	시군명	시군별 대의원수 대의원수	선출구	후보자 등록현황
30	전북	군산시	3	익산군산 축협	심순택 김석산 조원호
31	전북	익산시			
		전주시	2	완주축협	구광희 김영섭
		김제시			
32	전북	완주군	1	무주진안 장수축협	-
		진안군			
		무주군			
33	전북	장수군	3	순정축협 정읍지점	주상근 이상영 김광삼
		정읍시			
34	전북	순창군	1	순정축협	정윤섭
35	전북	고창군	2	고창부안 축협	오세진
		부안군			
36	전북	임실군	1	임실축협	최완욱
37	전북	남원시	2	남원축협	한병권 강종석
38	충남	충남	2	천안축협	김의겸 이봉재
39	충남	충남	2	공주연기 축협	임교빈 윤금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40	충남	충남	2	당진축협	이홍재 한용현
41	충남	충남	1	아산축협	최윤희
42	충남	충남	1	서산축협	안진식
43	충남	충남	1	홍성축협	김응수
44	충남	충남	1	예산축협	신현철
45	충남	충남	1	보령축협	김장배
46	충남	충남	1	청양축협	최창호
47	충남	충남	2	부여축협	박종성 여성원
48	충남	충남	1	서천축협	임준철
49	충남	충남	2	논산계룡 축협	신병철 정운광
50	충북	충주시	1	충주축협	김종선
		제천시			
51	충북	단양군	2	음성축협	이상정 최병하
		음성군			
52	충북	증평군	1	괴산증평 축협	이용균
		청주시			
53	충북	괴산군	2	청주축협	이준동 원용균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54	인천	진천군	1	인천강화 옹진축협	신선호
		중구			
		계양구			
		서구			
55	제주	강화군	1	제주축협	-
		제주시			
		서귀포시			

· 선출구 수 합계 : 55개

* 선거구별 대의원선거 당선자 수 : 총 71명